

特 輯

國立中央圖書館의 施設

崔 成 眞  
成大 圖書館學科 副教授

차 례

1. 서 언
2.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과 성격
3. 환경 및 외관
4. 내부구조 및 장식
5. 실내환경과 설비
6. 결 언

1. 서 언

어떤 건물을 짓든, 당초 그 건물의 목적에 충실한 설계를 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없는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그 속에서 할 기능과 업무에 따라 건물의 의형과 내부 구조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주택에는 수면, 식사, 욕아, 휴식 등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듯이, 도서관에는 그 나름대로, 주택과는 다른 도서관 특유의 설계가 필요하다.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여, 도서관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유능한 건축가라도 혼자서 힘으로는 기능과 업무에 적합한 좋은 도서관 설계를 내놓기 어렵다는 것이 경험자의 말이다.<sup>1)</sup> 그러므로 도서관 설계를 건축가에게 맡길 때, 관장은 자기 의견을 잘 설명하고, 그 의견이 설계에 십분 반영 되도록 해야 한다. 훌륭한 도서관 건축은 예외 없이, 우수한 도서관장과 유능한 설계자의 긴밀한 공동 작업의 산물이라고 한다.<sup>2)</sup> 이는 훌륭한 도서관을 건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수한 도서관장이 자초지종 계획 추진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도서관이든 도서관이라면 다 그 기본 업무 조직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 이것이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하고 상점이나 학교와는 다른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러한 공통 성격 속에서도 도서관은 그 기능 활동의 차이에 따라 각양

각색의 구조와 설비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열람실과 대학도서관의 세미나실과는 그 구조나 분위기가 판이하며, 이용자 출입이 빈번한 開架열람실의 자료 배열 방식과, 이용도가 낮은 자료를 넣어 두는 保存서고의 배열 방식이 또한 완전히 다른 것이다. 업무의 종류, 분량 등에 따라 적절한 면적과 설비를 마련하고, 각 부분이 서로 편리하도록 방안을 배치하는 일, 이것들이야말로 도서관 설계의 기본 문제이며 도서관장과 설계자가 공동으로 창조하지 않으면 안될 작품의 요건이다.

관장이 도서관 설계를 맡은 건축가에게 먼저 해야 할 일은, 도서관 속에서 어떤 업무가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므로, 먼저 자신이 도서관 업무의 실태, 미래(반세기 또는 수세기 후)의 전망 등에 관해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도서관은 첫째,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선정, 수집, 정리, 보존하고, 둘째, 이용자에게 좌석, 자료, 참고 및 기타 봉사물을 제공하며, 셋째, 도서관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알맞은 설비와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다. 이 자료, 이용자 및 직원을 도서관의 3요소라 할 수 있으며, 이 요소들의 활동 무대에 해당하는 것이 즉, 도서관 건물인 것이다.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오다가 지난해부터 도서관계의 일대 당면 과제로 등장한 국립중앙도서관 이전문제에 대해 도협월보는 한 특집호로써, 館長의 의견 및 조언을 묶어 표하기로 하고,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및 설비의 기준”부문을 필자가 맡게 되었다.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도서관 행정의 경험이 있고, 또 현재 도서

1) Howard M. Rowe, "The Librarian's Function in Preliminary Planning." In Hoyt R. Galvin ed., *Planning a Library Building; the Major Step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55, pp.11-5.

2) Edmund V. Corbett, *An Introduction to Librarianship*, London, Clarke, 1966, Chapter 8, Library Buildings, pp.101-5.

관학과에서 이 분야를 가르치고 있다는 이유로 세워진 명에인 것 같다. 제한된 지면 관계로 광범위한 문헌 인용은 불가능하고, 단지 시설 및 설비의 일반 원칙에 기초하여, 국립중앙도서관 특유의 기능과 업무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및 설비의 한 모델을 작성 제시하는 것으로 주어진 요청에 응답 하고자 한다.

### 2.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과 성격

기능에 대해서는 본 특집에서 다른 저자에 의해 상세히 다루어질 것이므로, 여기에 중복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건물이 그 속에서 할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국립중앙도서관 건물의 특색을 결정짓는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만 논급하고자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의 대표적 공공 도서관 및 정보센터로서의 기능 외에 다음 세가지 기능을 더 가지고 있다고 본다.

첫째는 국내의 모든 자료를 축적 보존하여 나라의 종합적 기록 문화재를 이루고, 이를 닦아오는 모든 세대에게 전해주는, 국가 문화재의 축적 보존기능이다. 이 국가 문화재를 소장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외관에 문화 국민을 상징하는 襟度가 나타나 있어야 하며, 국민의 전통 문화와 지혜의 寶庫에 어울리는 기품과 분위기를 지녀야 한다. 인류는 다른 동물과 달리, 오랜 역사를 통해 지식, 기술, 사상 등을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다시 더 높은 지식, 기술을 개척하면서 오늘의 문화를 쌓아 올렸다. 이것은 인류만이 향유해 온 은총이며, 다른 동물 사회에는 이런 축적이 없어 언제까지나 원시적 상황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 날 우리가 자랑하는 민족 문화의 바른 전승과 창달을 기하려면 문화재의 효율적 축적과 보존기능을 생각해야 한다. 이 문화재와의 연결이 단절될 때, 우리 민족은 전통 문화를 잃고 원시 상황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 민족을 문화 민족으로 보장하는 성스러운 기관이다. 세계의 많은 국립중앙도서관이 기능위주의 실용 건물이기보다 神殿의 품격을 지닌 것은 이 때문인 것이다.

둘째는 국내의 도서관을 지도하고, 세계의 도서관, 문화기관과 협력하여 국제문화의 진흥을 도모하는 국가 대표(중앙)도서관의 기능이다. 국립극장 혹은 왕립극장이 무대 예술에 있어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처럼 국민 문화에 있어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국립중앙도서관인 것이다. 우리 문화를 세계에 대표하는 전당이라 생각할 때, 그 건축을 어떤 시대의 편이나 사정에 따라 적당히 행할 수는 없다. 그 시작이나 태도에 있어 국립중앙도서관 건축은 한 대학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

건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현대 도서관학의 최고 이론을 실천하며, 그 실천을 통해 그 나라 도서관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즉, 도서관학의 연구 및 보급기능이다. 이런 기능을 위해 중앙도서관 건설은 당대 도서관학 권위의 광범위한 참여와 기존도서관 문헌의 評考, 전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의 여러가지 복잡한 조건 절차를 필수적인 것으로 한다. 여기에 유의 해야 할 것은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설계가 어떤 시대적 유행 이론이나 한 건축가의 특이한 취미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모든 도서관이 그렇지만 특히 중앙도서관은 세기를 단위로 하는 長壽기관이므로, 그 장구한 생애 동안에 그러한 유행 이론이나 취미가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국민도서관은 15세기에 창설되었으며 영국의 대영제국박물관도서관은 1759년에, 미국의 의회도서관은 1800년에 각각 건설 되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 세가지의 국가 중앙도서관의 기능외에도 나라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이 있다. 국가문서 보존, 희귀자료 보존, 국가적인 서지 및 정보 활동, 인쇄목록 카이드 작성 배포, 신책불구자에 대한 봉사 등이 그 주요 예일 것이다.

이중의 어떤 기능이 부가되든, 설계자는 그 기능에 맞도록, 즉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고, 직원이 일하기 편한 능률 지향적 구조와 배치를 창안 구현해야 할 사명을 가진다.

### 3. 환경 및 외관

중앙도서관의 위치에 대해서도 본 특집호에 다른 저자가 상세히 다룰 것이므로 여기에 중복함은 의미없는 일이었으나, 환경과 외관의 품격, 효용 문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건물에 인접한 직접 환경만을 간단히 논하고 외관 문제로 진입 하려고 한다.

중앙도서관의 환경은 넓은 독립 대지가 이상이다. 이는 조용하고, 채광이 좋고, 防火上 안전하며 층층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前章에서도 밝힌 것처럼 중앙도서관은 기념비적 의의를 가지므로 주위가 공원풍의 환경이면 더욱 좋을 것이다. 접근하기 불편하다는 단점을 말할 수 있으나 중앙도서관이란 자료의 보존과 고도의 조사 활동이 주로 행해지는 곳으로 일반 공공도서관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 세워질 중앙도서관건물의 외관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이 주제에 관한 몇가지 문헌을<sup>3)4)5)</sup> 評考하고 우리나라 제 실정을 감안한 후 필자가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가. 문화 국민을 상징하며, 민족적 문화 유산과 지혜의 보고에 어울리는 기품과 분위기를 지녀야 한다. (이점 前章에서 논급한 바와 같다.)

나. 중앙도서관은 장수하는 사회 기관이므로 시대적 유행 요소의 도입같은 것은 금물이며, 어느시대에나 받아들여질 고전적 건축 양식이 무난하다. (이점 또한 前章에서 논급 하였다.)

다. 장식을 일체 배제하고 기능을 강조한 콩크리트 素材의 단순한 面, 線, 色의 調和(예: 日本의 國立國會圖書館)가 건축가나 기사에게는 흥미가 있을런지 모르나 일반 시민은 오히려, 평범하게 정원에 선 매혹적이며 친근감을 주는 건물을 좋아하고 거기에 붙인 우아한 장식을 국민의 교양으로 자랑하고 싶어할 것이다.

라. 건물의 기능이 표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현은 難解한 것이기는 하나 적어도 누구에게나 그것이 도서관 다음에 보여야 할 것이다. 건물 주위를 창문만으로 하여 밖에서 내부 활동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마. 상징적 조각 또는 회화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미술품이 국민 문화를 대표하는 전당으로서의 품위를 더하고 장려한 분위기 醸成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바. 그 우선 순위는 다물 지연정, 일반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중앙도서관도 일반 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기능을 가지므로, 그 외관이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힘이 있고, 그 내부에 교양과 정숙을 包藏한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 4. 내부 구조 및 장식

내부 구조는 한 마디로, 사용상 편리와 美觀의 결미가 바람직하다. 이용자와 직원의 動線이 원활해야 하며 靜肅部와 騒音部의 구분은 필수적이다. 건축가가 설계의 시종을 통하여 유의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은 첫째 이용자가 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일과, 직원이 일하기 좋고 이용자와 쉬히 접촉하고 감시하기 편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부 장식의 이상은, 이용자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快適한 조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실내 장식을 매혹적으로 하고, 부드러운 분위기, 적정 실내 온도, 적정 조명, 편한 의자의 마련 등이 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내부 장식을 지나치게 하는 것이 能事는 아니다. 벽면을 고상한 색채와 무늬 장식으로 하여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화분으로 녹색을 더하는 정도로 족할 수도 있다. 한 가지 더 욕심을 낸다면 건물 내부에서의 교통을 조사하여 직원이 귀중한 시간을

여기저기 다니는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방 배치를 적절하게 해야 할 일이다.

도서관 내부의 효과는 벽면, 천정, 바닥, 계단, 복도 등 처리의 종합 효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내부가 요란스럽거나 무미 건조해서는 안될 것이고, 또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워도 좋지 않다. 도서관 내부의 금과 옥조는 館種이나 대소를 막론하고, 조용하고 교양있는 분위기로 이용자를 끌고 안정시키는 것이다.<sup>6)</sup> 그러한 내부 효과의 조성을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 가. 벽 및 벽표면

여기서 재료에 대해 하나하나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청결성, 反響性, 反射性, 壁書架 등이 다루어질 문제임을 지적하는 것은 유익할 것이다. 첫째, 청결성 벽이라면 매끈하고 水洗 가능한 벽면이 바람직하다. 둘째, 反響性 문제는 정숙부에 吸音板 또는 코르크타일과 같은 부드러운 표면 재료를 사용 함으로 해결된다. 셋째, 反射性은 색채의 明度와 벽 표면의 광택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벽서가 문제, 요즘 벽면은 뭘 수 있는대로 서가를 붙이는 것이 좋다는 이론<sup>7)</sup>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이점은 공간을 절약하고, 창을 없앴으로써 창밖 경치를 차단하고, 외부 소음을 막는다는 등이다.

#### 나. 천 정

천정 설계에 있어 주의할 일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조명이고 다른 하나는 음향이다. 천정은 광선을 아래로 반사해 주어야 하므로 80% 이상의 광선을 반사하려면 백색(밝은 색)이어야 한다. 백색 회칠을 하면 광선 반사에는 더할 나위 없으나 음을 반사하는 흠이 있다. 이것은 吸音板등을 사용해서 吸音性으로 할 수 있다. 흡음판은 음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광선을 난반사시키므로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다. 바 닷

도서관은 방에 따라 다른 바닥을 필요로 한다. 재료의 선택은 그 방의 요구 조건에 따라 다음 사항들을

- 3) 三浦道雄, 圖書館施設と設備, 東京, コロナ社, 1970, pp.15-6.
- 4) Paul Schweikher, "The Spaces In Between." In Keith Doms and Howard Rovelstad, ed. *Guidelines for Library Planners: Proceeding of the Library Buildings and Equipment Institute*,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60, pp. 7-10.
- 5) Keyes D. Metcalf, "The Librarian's Function in Programming." In Galvin, ed., *op. cit.*, pp. 3-8.
- 6) 三浦道雄, *op. cit.*, p.42.

고려하여 결정함이 일반 원칙이다.

- (1) 耐久性이 있는가?
- (2) 維持 및 청소하기 쉬운가?
- (3) 가격이 적정한가?
- (4) 미끄럽지 아니한가?
- (5) 따스하고, 전기와 열을 차단하는 물질인가?
- (6) 부드러운가? (그래서 걸을 때 소음이 나지 않는가?)
- (7) 색채는 어울리는가? (빛을 많이 반사하는 색채인가?)

다. 계 단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직원 전용 계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승강기가 없으면 윗층으로 가기 위해선 계단의 존재는 불가피 하다. 그러나 莊大한 계단을 좌우 대칭으로 만든다는 것은 도서관의 귀중한 공간을 낭비하는 것이므로 현명한 생각이라 할 수 없다. 계단은 대소간 소음부이므로 정숙부와의 사이에는 斷音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나. 복 도

미국 도서관 설계의 선구자 칠턴(E. L. Chilton)은 “경제적인 도서관 설계는 홀, 복도, 계단 등 교통용 공간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도서관 본래의 활동을 위한 방들에 최대한의 면적을 할당하는 것이다. 벽 두께, 홀, 계단 등에 주어지는 면적은 건물 전면적의 20% 정도로 줄이고 그 기능이 다 정당화 되어야 한다.”고 한다. 복도는 확실히 낭비된 공간이며 설계자가 교통 문제를 경제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것이다.<sup>8)</sup> 일단 복도를 만들면 사용도가 낮더라도 난방과 조명을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손실은 가중된다. 어떤 도서관은 호화로운 복도를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휴식 장소를 제공하는 예가 있으나, 이는 단순한 교통을 위한 복도라 볼 수 없다.

5. 실내 환경과 설비

가. 음향과 소음 방지

정숙 문제가 열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말할 필요 없는 상식이지만, 요즘 우리 생활 주변에서 소음은 점점 증가하고있어 골치꺼리다. 차량, 항공기 등의 외부음은 도서관에서 뿐만아니라 사회 전체의 중대 문제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내부 소음으로서 전화, 타자기, 냉난방장치, 기타 기계기구의 소음 등이 업무의 촉진과 방해물 같이하고 있으며, 또 새로운 건축에서는 구조가 連續體로 되어 있으므로 소음이 끝에서 끝까지 전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소음 방지는 더욱 중대 문제가 된다. 특히 중앙도서관은 많은 직원이 각종 업무에 종사하고, 한편 고도의 전문 분야 연구

조사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설계자는 내부 구조에 있어 靜肅部·會話部·騒音部の 구분을 확실히 하고 이들 각 부간의 격리에 완벽을 기해야 할 것이며, 외부 소음의 배제에 특별한 건축 기술상의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나. 난방과 환기

사무와 경노동을 하는 곳의 快適 온도는 15°~25°C 의 범위에 있다. 대체로 유럽에서는 표준 온도를 낮게 잡고 (예 : 영국은 18°C), (미국에서는 다소 높게 잡고 있다 겨울 21°C, 여름 27°C). 건물은 외벽 면적이 넓을수록 열 손실이 크다. 겨울의 난방비, 여름의 냉방비가 다 열 손실이 큰 건물 일수록 많아진다. 그러므로 복잡한 외형보다도 단순한 외형의 건물을 설계하면 난방비와 냉방비를 적게 들여도 된다는 이론이 된다. 아직도 관리 부문에 최소한도의 예산을 할당할 수 밖에 없는 우리 나라로서는 참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 한다.

쾌적한 환경은 온도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쾌감도는 온도와 습도와 기류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창문을 닫은 실내에서는 기류 속도가 극히 작으므로 주로 온도와 습도에 의해 쾌적 조건이 정해진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즉,

온도 15°~28.5°C (기준 22°C)

습도 45~65% (기준 55%)의 범위내가 쾌적 조건에 합치된다.<sup>9)</sup> 습도가 60%를 넘으면 도서에 곰팡이가 날 우려가 있고 40%이하가 되면 도서 표지가 휘틀리고 더욱 습도가 낮아지면 책의 등부분이 터지는 수가 있다. 도서보존만을 생각한다면 서고 온도를 영하10°C 정도로 낮추고 습도를 그 온도에 있어서의 포화습도로 유지함이 이상적이다. 이와 같은 저온에서는 곰팡이가 날 리 없고 줌도 쓸 수 없으므로 곰팡이나 줌으로 인해 생기는 싹들 다 막을 수 있을 뿐아니라 공중 산소의 산화 작용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風化 현상도 거이 정지하여 책 보존의 이상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흔히 희귀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중앙도서관은 이러한 서고를 하나 둘 마련하여 그 속에 도서를 收藏하면 원형대로 영구히 보존 할 수 있다. 단 저

7) Guy R. Lyle, *The Administration of the College Library*, NewYork, Wilson, 1961, Chapter 16, The Library Building and Equipment, pp. 374—90.

8) Keyes D. Metcalf, “Transporting Books and People in the Library.” In Frazer G. Poole, ed., *The Library Environment; Aspects of Interior Planning*,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65, pp. 51—6.

9) 三浦道雄, *op. cit.*, p.52

은 상황에서는 습도가 불안정하여 乾害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서고안 여기 저기에 열음을 놓아 서고내의 습도를 포화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저온 상태에서 절대 습도는 매우 작으므로 포화 습도로 인해 도서가 濕害를 입을 걱정은 없다고 본다.

일반대출도서부는 사정이 전연 다르다. 열람실은 이용자의 기본 층은 독서를 위해 快適溫濕度로 유지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에 영하 10°C로 냉각된 도서를 가져 오면 더운 열람실의 공중 수분이 그 찬 도서에 結露하여 순식간에 水害를 입힐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젖은 도서를 다시 영하 10°C의 서고로 반납하면 이번에는 도서 전체가 얼어 붙어 다시는 펴 수도 없는 책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대출도서용 서고의 온도는 열람실과 같이 하던가 적어도 비슷한 온도로 유지 되어야 한다. 많은 도서관이 서고 온도를 14°C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서 收藏을 위해서는 온도가 낮을수록 좋으나 14°C가 그 도서를 20°C의 열람실에 가져올 때 結露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최저 온도이기 때문이다.

#### 다. 虫害와 風化

공기 조절에 의해 서고내의 온도를 22°C, 습도를 55%로 유지하면, 도서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것은 막을 수 있으나 虫害는 방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서고안에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無虫, 無卵 도서만을 넣을 것이며, 건축가가 특히 이 점에 대해 배려할 것은 無窓 건축, 기타 방법으로 벌레의 침입을 방지하는 조치를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취하는 것이다.

공기 조절을 하고 있는 서고안은 봄바람이 불어오는 상태이다. 봄바람이 불면 도서의 風化는 촉진되는 것이다. 보통 도서는 이용에 의한 손상이 風化에 의한 손상보다 훨씬 빠르므로 걱정할 것 없으나 이용도가 낮은 도서는 풍화에 의한 손상 쪽이 크다. 특히 장차 인류를 위해 남기고 싶은 귀중 도서류는 풍화가 크게 문제된다. 이러한 귀중 도서는 케이스에 넣어 다시 나무상자에 넣은 다음 서가에 놓거나 혹은 이것을 다시 안전 캐비닛에 넣어 서고안의 기류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귀중 도서를 둘러싼 공기는 움직이지 않게 되므로 保護膜의 구실을 하여 풍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돕기 위하여 건축가는 서고의 설계에 있어서 기술상의 배려를 충분히 해야 할 것이다.

#### 라. 조 명

설계자는 자연 광선과 인공 광선을 잘 이용하여 열람에 적합한 조명을 행할 것을 생각해야 한다.<sup>10)</sup> 열람실은 부드럽고 밝아, 눈에 피로를 주지않는 조명이 요

구되고, 개가열람실 또는 서고는 도서를 찾고 이것을 다시 배가하기 편하도록 서가의 上段과 下段에 고른 조명이 요구되고, 필기하고 타자하는 사무실에는 강한 조명이 요구된다. 이와같이 도서관 각 부분은 그 활동 내용에 따라 알맞는 조명이 요구되므로 건축가는 이점 특히 도서관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아야 할 것이다.

#### 6. 결 언

국립중앙도서관은 나라의 기록 문화재를 한데 모아 닦아오는 모든 세대에 전해 주는 영구한 국가 문화재 소장기관이다. 이것은 단순한 보존이나 축적이 아니며 후손들이 이 문화재에 접촉하여(이용하여) 선조의 문화를 올바르게 잇고 더욱 창달함으로써 영구히 이 땅에 고유 문화를 보존하려는 적극적 사회 행위이다. 그러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은 어느 기간동안 또는 어느 기관을 위해 유용한 수많은 다른 문화 기관과 다르며, 또 다른 도서관들과도 다르다.

최근 국립중앙도서관 건물의 신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 건물이 앞으로 10세기, 혹은 20세기를 살아 활동할는지 모른다는 도서관의 장수성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대학 도서관 중에도 5세기를 넘은 것이 있다.) 또 도서관과 함께 그것을 건축한 시대가 기억된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러한 과제를 맡은 우리는 다행한 세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사용할 닦아오는 세대들이 몇세기를 두고 사랑하며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건물을 지어 주어야 할 것이다. 短命한 것에 범한 실수는 短時間에 사라지지만 도서관처럼 장수하는 것에 대한 실수는 치명적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이 과제를 맡고, 특권을 즐기는 한편 두려움을 느껴야 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전술한 의미에 비추어 우리의 문화와 슬기의 寶庫에 어울리는 당당한 기품과 문화 국민의 상징을 지닌 기념비적 건축인 동시에 그 속에서 행해지는 중요하고도 복잡한 업무에 알맞는 기능 중심의 건축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건물의 창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충분한 시간이 허락된 상황에서 우리 시대의 도서관제와 건축제의 지혜를 집대성함으로써 이루어질 어려운 과제이다. 아무리 건축의 준비나 실행 과정이 길다 하여도 그것의 생애에 비기면 실로 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0) H. Richard Blackwell, "Lighting to Library, Standards for Illumination." In Poole, ed., *op. cit.*, pp. 23-31.